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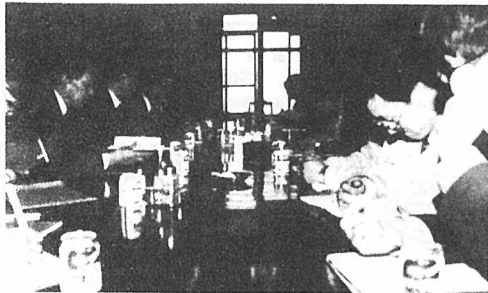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경덕
주필	김남중
편집장	김남중
발행처	외대신문사 7128, 961-4151
대외부	961-4152, 961-4183(FAX)
학생기자실	9559-6574, 035-30-4112
130-78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81	경기도 용인군 처안면 용인리 589
인쇄	인쇄
편집	편집
발행	발행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등록번호 제 2153호

THE OE DAE HAGBO

제623호 1994 3월 14일 (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

1



지난 8일 (화) 열린 협상은 서로간의 큰 입장차이로 결국 결렬됐다.



서울총학은 8일 (화) 등록금협상 결렬된 뒤 10일 실천대회를 열었다.

학교측, 등록금 조정 불가 표명

등조위 구성 거부는 92년 합의서 파기행위

16일 서울·용인 공동집회로 등투, 절정에 달할듯

부당한 등록금 인상 거부로 시작된 등록금투쟁(등투) 협상이 진전돼 이번 주를 고비로 대학 측·학생 측간의 공개 요구 등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강력한 투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양캠퍼스 부총장배회장 등 학생대표 6인으로 구성된 '등록금투쟁 승리를 위한 이문·왕산 공동등투위원회(공동위)'는 지난 8일 (화) 대학당국과 등록금 관련 협상을 기했다.

서울 캠퍼스 학생회장 기연수(노어과) 교수, 유영모 예산과장 등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입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당국측 협상단은 "이날의 모임은 단순히 등록금 조정 설명회인 셈이며, 등록금은 전권기관이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대표와 등록금조정과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당국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논의보다 앞으로의 사용내역에 대해 논의를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위는 한 이강희총장 앞으로 보낸 협상제안서에 나온 △예산과장의 명확한 공개 △대학당국의 하부 예산운영체제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공식입장과 대외관계, 준비정교 △용인 캠퍼스 후생복지권 전담계획과 지역내 자생산업에 대한 해방 △예산과장의 하부조직에 대한 남극의 입장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모 예산과장은 "94년도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등록금을 책정했다"고 밝혔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두번째 질문에 이종훈(무역학) 기획조정처장은 "외국취업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착공되고, 외대빌딩 5개년 기본계획안에 지역

학연구 강화 항목이 들어 있다"라고 답변했다.

각부처와 영역별 세부 예산·예산안 공개 요구에 대학당국은 전체적으로 다 밝힐수는 없고 대부분 학생들이 요구하면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제단의 재정적 책임과 관련해 88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의 2배 인상에 비해 해 예산잔액금 0.4배 인상사실을 근거로 한 공동위의 질문이 이종훈(무역학) 기획조정처장은 "비밀이고 돈 잘 버는 대학 재단보다 깨끗하고 돈 조금 버는 재단이 낫지 않느냐"라며 제단의 입장을 변호하였다.

뒤이어 학생들의 최종적인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기연수(노어과) 서울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등록금 협상과 등록금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안된다"라며 교육시장개방을 반대하지만 피할 수는 없고 공식적 당국 입장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예산공개에 대한 성실한 답변 △이후 등록금과 관련한 지리는 사유가 타당할 때 가능 △수생복지권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었으니 다음에 논의하고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좀더 검토 △지역내 자생산업 부문은 16일(수) '등투 승리의 교육시장개방 반대'를 위한 이문·왕산 결의대회'를 서울캠퍼스에서 전국각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지를 모아 등투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목) '등투 승리를 위한 애국외대 실천대회'를 약 1천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것은 한 이강희 총장에 대한 무시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며, 한편으로 당국과 학생간의 원칙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 이강희 총장이 학생들에게 부총장급 인사들 참석시켰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참석하지 않아 이번의 협상이 기존의 입장과 일치하고 끝난 것. 셋째, 용인 총학생회에서 요구했던 후생복지권 전담계획에 대해 아무 준비없이 나왔다는 점. 넷째, 아직까지 인상을 3%가 낮아진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 점. 다섯째, 예산안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은 지난 12월 결정하고 예산안은 2월말 작성한 점 등이다.

두번째 사항과 관련해 대학당국은 지난 3월 2일 (수)자로 신입 보직인사 이동을 진행했고, 이에 당국측 협상대표들이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못한 것과 다섯번째, 합리적이 아닌 등록금 책정사실이 앞으로 등투 과정에서 대학당국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공동위는 당국이 저조한 근거없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후 투쟁방향을 지금까지의 대중선전과 건부교과에서 대중투쟁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하고 오는 16일(수) '등투 승리의 교육시장개방 반대'를 위한 이문·왕산 결의대회'를 서울캠퍼스에서 전국각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지를 모아 등투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목) '등투 승리를 위한 애국외대 실천대회'를 약 1천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것은 한 이강희 총장에 대한 무시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며, 한편으로 당국과 학생간의 원칙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 이강희 총장이 학생들에게 부총장급 인사들 참석시켰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참석하지 않아 이번의 협상이 기존의 입장과 일치하고 끝난 것. 셋째, 용인 총학생회에서 요구했던 후생복지권 전담계획에 대해 아무 준비없이 나왔다는 점. 넷째, 아직까지 인상을 3%가 낮아진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 점. 다섯째, 예산안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은 지난 12월 결정하고 예산안은 2월말 작성한 점 등이다.

두번째 사항과 관련해 대학당국은 지난 3월 2일 (수)자로 신입 보직인사 이동을 진행했고, 이에 당국측 협상대표들이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못한 것과 다섯번째, 합리적이 아닌 등록금 책정사실이 앞으로 등투 과정에서 대학당국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공동위는 당국이 저조한 근거없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후 투쟁방향을 지금까지의 대중선전과 건부교과에서 대중투쟁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하고 오는 16일(수) '등투 승리의 교육시장개방 반대'를 위한 이문·왕산 결의대회'를 서울캠퍼스에서 전국각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지를 모아 등투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목) '등투 승리를 위한 애국외대 실천대회'를 약 1천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익스피어 이야기

▲"마왕수 교수와 인도를 비록 수 없다"는 내용의 등투카드가 며칠 전 연세대에 걸쳐 회제 됐다. 이 등투카드들은 곧 주한 인도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철거되는 우여곡절까지 겪었다.

세익스피어 대신 마왕수 교수라는 이름으로 대체돼 주목을 받게 된 이 등투카드 사건은 그날 찾아버려버려 지나가기 전에 한시가 우리나라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영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의 상태에 있던 인도를 빛내며 영국인의 우월감을 세익스피어라는 인물을 통해 나타내려 했던 이들과 이 땅에 대해 우리는 단지 세익스피어의 위대성, 즉 '남대 회담의 문호'라는 식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진정한 식민지 억압과 착취를 받았던 인도 민중의 아픔은 뒷전인 것이다.

▲마왕수 교수야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 식민지 민중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인도 민중의 처부를 다시 한번 건넌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잊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의 상태. UR광복에 밀려 우리네 먹거리조차 위협받는 치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가 전쟁광포에 떨어야 하는 상태에서 과거 인도 민중의 모습을 남에게처럼 '알아볼까'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국 사람들은 틀림의 습성이 있어 맹목적으로 우두머리 주위로 몰려든다" 광주 학살 후 한미연합사령관 휘령이 한국인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외에도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이런 식의 조종을 많이 받아 왔다. 영국이 과거 식민지 인도를 조종한 말을 우리가 인용했듯이 우리도 언제, 어느나라로부터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조종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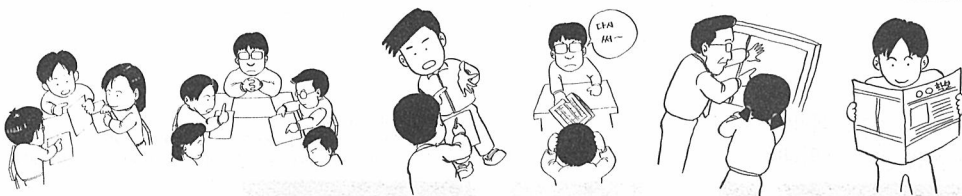
그렇게 되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즉 자주적인 국가로 멋있게 서야 할 것이다.

<정지혜>

지면안내

- 3면 : 변화된 취업세태 어떻게 대처하나
- 5면 : 북한핵권력 인터뷰-정대철 민주당 의원
- 7면 : 대중매체의 확산과 비평의 중요성
- 8면 : 그림돌고기-중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 9면 : 국가보안법을 진단한다.
- 10면 : 학생회의 역사

3월16일(수)에 열릴 예정이던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당신에게 용기가 없다면 '자유'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리'속에서 더 커진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는 깨어지고 거듭나는 아픔 속에서 눈물을 참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구속을 싫어했던 사람들. 뜨거운 사랑을 소망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된다는 것을, 용기없는 사람은 자유와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5기 44기 모집

- △대 상 : 이문·왕산 94학번 새내기
- △모 집 : 일반, 사진, 만화기자
- △마 감 : 3월21일(월) 늦은 5시
- △원서배부처 :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외 대 학 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서울지역 동부지부

- 건대신문사 ● 광운대신문사 ● 대학주보사
- 산일대신문사 ● 서울대대학보사 ● 세종대신문사
- 서울대신문사 ● 연세대신문사 ● 한신대신문사

사 설

참된 봄을 부르며

감각이 몰아닥친 대학의 찬바람이 비록 우리로 하여금 다사한 봄을 여미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가버린 겨울을 되돌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위틈새로 스며들 봄기운을 어찌하는 못하는 것 같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특별히 나의 눈길을 이끄는 곳이 있다. 도서관 앞 잔디밭의 반쪽짜리 향나무가 그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모양이었던 것은 아니다. 주위의 어느 향나무처럼 통그렇게 다듬어진 채로 자리한 평범한 그런 나무였다. 그런데 이제 지난 90년 연례이런가 아수신하던 시국중 어느 하루, 단거리 화염병의 불꽃이 우연히 그 나무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란 가지의 반쪽이 불타버렸던 것이다.

그해 화교를 나서던 길에 타다 남은 채 원인을 기를 내고 있던 나무를 안타깝게 지켜본 이후 그곳을 지난 때면 늘 마음이 쓰여졌던 것이다. 그때 겨울을 푸시함에 겨우 죽지나 않을가 걱정하기도 하였으며 봄이 되면 흑시라고 타버린 부분까지 사색이기로 서로 신뢰하는 새로운 사회건설에 동지처럼 되기를 기대하였었다.

그나리나 대다수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출발하였던 개혁은 때로는 그동안 말하였었던 엄밀한 부정에 대한 공개로 많은 사람들의 탄압하게 하였으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삶과 적·간첩으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런이 지난 아직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대형 부정부패에 대한 소식에 갈증이 없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반란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개혁 입법의 통과와 91% 이상의 권고권 관련 해직교수들의 교단복귀라는 불소식이 약간의 위안을 주고 있다.

우리 외대도 새로운 함께 살면 열 이상의 세식구를 맞이하여 강선, 복도, 운동장을 비롯하여 대학원생이 온갖 싱그러움으로 가득차 있다.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고 익힐 것인가를 생각하며 강의를 듣는 그들의 호기심 많은 눈초리에서, 처음 대학을 그, 학회 혹은 동아리의 동료, 선배들과 낯설지만 거리낌없는 대화에서 다사한 봄이 왔음을 느낀다.

생명력이 가득찬 봄이 왔음을 분명 느낀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느껴지는 것은 도서관 앞 향나무의 타버린 부분을 어떻게 소생시키고 나무를 더욱 푸르게 가를 것인가라는 생각에 대한 부담스러움 때문이다.

지난날 강의 책 매도 없이 아수신하던 학생집회의 학생회 소리나 풍물패의 불협화음이나 코를 찌르던 최후자의 내용에 대한 할주는 분명 아닐진대 타버린 향나무가 늘 아쉬움으로 남는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 외대는 전학 40주년을 맞는다.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중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리라.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사와 학교에서의 자리매김과 함께 새로운 싱그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 좀더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 가슴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흡산의 소리

졸업학점 관리에 주의하자

금년도에 각 대학에서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고 우리 대학에서도 지난 2월 25일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2천 6백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지그만 실수와 학점 관리의 소홀함 의해 상당수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를 더 다니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본 대학의 교과과정은 개교 이래 4차에 걸쳐 개편돼 90학년도부터 세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높은 식품을 골라 먹어야 하듯 학점의 확보와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과가 어떤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다.

본 대학의 교과과정은 전공, 계열,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및 자유선택의 다섯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다섯 영역의 각 과목(계열교과, 전공교과, 교양필수)과 수강에서는 인도는 과목(예: 중국어와 학생이 한국과목 수강)을 알아야 하며 이의 배치가 강의시간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제히 살펴보고 수강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각 과목들이 주어지는 학점은 중북수강이다. 중북수강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게 돼 있다. (졸업사정 규정 제4조 제1항) 이에따

라 성적표에 나타난 학점이 1백 40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어도 지기도 모르는 중북수강 과목이 있어 졸업을 못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졸업을 한두 학기 남긴 학생들이 졸업학점에 문제가 돼 졸업을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유형을 짚어 소개하고자 한다.

졸업학점 1백 40학점(인학과 1백 50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사정에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각 대내별로 정해진 전공학점이 1학점이라도 부족할 경우나 계열교과 과목을 미수강한 경우(1, 2학기에 걸쳐 4학점, 자연과학대학 6학점), 전공과목 학점을 부정공과목에서 취득한 경우다. 그리고 교양과목 중 공통필수 및 선택필수 학점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수강과목을 학기를 다르게 수강한 경우(예: 국어학, 국민윤리, 국사, 체육, 제2외국어, 교양영어),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자기 전공과 관련된 수강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수강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그 외에도 졸업사정(졸업)은 원은 반드시 졸업 해당학기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편 합격하면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점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학기의 출석과 학점을 따지고 수업을 계속시키는 학생들도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이 졸업을 임박하여 남태를

등투 방식 새롭게 모색하자

학과장실 문을 열고 심각한 표정으로 어느 선배님이 동북금공에 관해 묻는 것을 들었다. 융자신청을 하고 마음 놓고 있던 선배는 융자신청자 명부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다. 무슨 일이요 융자도 안되고 동북금공이란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날마다 하리가 뛰어들 때면 연례행사로 오르는 동북금, 또 거기에 따르는 동북금 투쟁.

재단수익의 80%이상은 재단건립금—학교의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돈—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동북금이란 것은 재단건립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학생들로부터 걷는 돈인데, 그림 외대는 재단수익의 80%이상을 재단건립금으로 쓰고 있는가? 3.4%만을 쓰고 있

다고 한다. 정말 아이같은 현실이다. 80%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 3.4%만을 쓰고 나머지는 동북금으로 충당한다. 거기다 정확한 수익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3.4%.

동북금헌장에 대한 우리들의 저항은 당연하다. 명분도 없는 동북금을 쓰기 사립학교법 위반인 재단에 고분고분 내렸는가. 동북금투쟁은 전학후수가 아닌 연례행사라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투쟁의 방법이 있어 진정한 저항이 아닌 연례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동북금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공유부터 시작해서 정당한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동북금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남자들의 태도
'내 주위에선 대면, 멀리선
변함' -M. 94-

나는 왜 항상 몸무게에 구
애받아야 하는가. -글레타-

'모든 것을 용서해도 얼굴
못생긴 것만은 용서못한다'
고 하는 남자. -P. 미인-

남자 화장실에선 설치돼
있는 소변기 -94. RAY CHO-

클에 '여자'라는 말을 붙이
는 남자. -여자-

여자라고 부르는 전경을
볼 때, 나도 싸우고 싶어. -여성전사-

주제 : 내가 느끼는
학내에서의 여성
문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욕하면서 꼭 끝에 여성들
에게 붙는 표현을 붙이는 행
위. -여성해방 전사-

여학생도 총학생회장 시켜
주요/ -차기 대권주자-

'에베라 생겼다'고 할 때
싫어하는 남자. -잘생긴 여성-

먼저 지난 93년을 돌아보면 도서관 내외에 외대인의 작은 정서를 모아서 이루어낸 참가자 사업들이 학과 동아리나 학과 하위조직이나 총학생회나 학과 하위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었다.

주로 도서관 내외의 규약, 편이나 집회 열람실내 비닐규제, 홍보물 부착의 규칙화, 사서와 방직 등 생활문화 운동에 역점을 찍어 외대사관 운동의 순발력을 그려보기도 했으며 도서관 옥상 휴게실 건립, 2, 3층 폐가게 세로로 개개별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을 이루었다.

그러나 도서관 백지화, 도서관 방직을 위한 사물함, 소지품 보관소 설치 등 일련의 사업을 펼쳐나간 것만으로도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날기도 하였다. 앞으로 도서관 지지 위원회는 도서관내 사서와 문예와 민방한 도서관 사관, 그리고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의견 개화를 주력하고자 한다.

이제 대해 외대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도서관 지지위원회)

고운말 쓰자

도서관에 있으면 분신식교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거나 혹은 수습을 가져다 주는 선의와 도움을 주는 호소나, 또는 찾는 데 도움을 준 안내에 감사하겠다는 글도 있다. 값 비싼,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물품을 잃어버린 자의 이름이 그곳에 실리니 세기 지는 것 같다.

최근, 분신식을 찾는 데지도에 대해 물음에 생각되는 것이 있어 몇자 적고자 한다.

그것은 선자를 호소했던 것과는 달리 안았을 경우 무서운 원망과 지주의 말이 어울려 이 대지에도 실리는 것이다. 잃어버린 학생의 이름을 손쉽게 이해하고, 혹 도움을 줄 수 없을까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본 내로서는 이렇듯 한 수 밖에 없었다. 대학은 지성인이 모여 사는 곳이다. 따라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찾은 분신이 얻어지는 비양심적 행태도 무시하지만 도널드 커먼의 연어를 구하는 학생도 한 문재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연어부러이려는 생각까지 든다.

대학은 문화의 산실이다. 시대의 전진을 지향하고 온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 사회로부터 상업적 지원과 선의의 연어를 구하는 학생도 한 문재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연어부러이려는 생각까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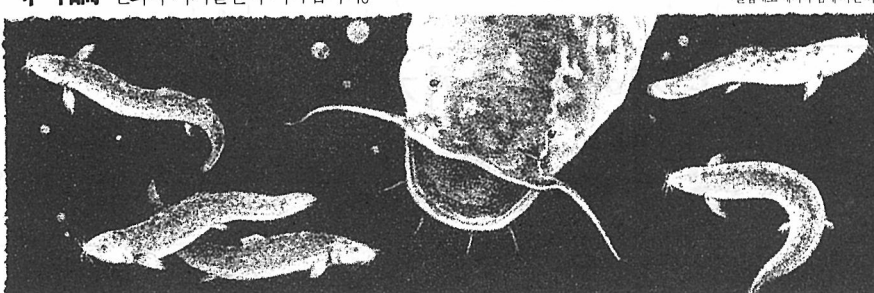
대학은 문화의 산실이다. 시대의 전진을 지향하고 온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 사회로부터 상업적 지원과 선의의 연어를 구하는 학생도 한 문재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연어부러이려는 생각까지 든다.

김현식·동양·중국어 4>

서훈·정학·형성 4

고교와 함께 세계로 미래로—심상

메기론 적절한 자극과 건전한 위기의식—변화와 자기발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란 귀찮은 대와 메기와 미꾸라지를 함께 키웠을 때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메기와 함께 자란 쪽의 미꾸라지가 훨씬 더 통통하게 살이 췌 있었

합니다.

메기의 자극.

미꾸라지의 위기의식—이것이 미꾸라지를

더욱 튼튼하게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요.

물음에도 항상 적절한 자극과 건전한 위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경쟁에 뒤지 않을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메기' 한 마리를

길러보세요.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 자기

발전의 가재다 메기—가장 내재해 있는

자신을 다짐아줄 수 있는 자기자신이 메기

될 수도 있겠지요. 야만인, 도시에서 말도

대를 밝히고 있는 가까운 친구, 하버드에서,

옥스포드에서, 그리고 동경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세계의 젊은이들—

이 모두가 여러분에게 건전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자기발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심상은 건전한 위기의식으로 과감한 자기변신을 추구하는 젊은 지성과

만나고 싶습니다.

SAMSUNG
삼성

농업포기는 경제발전의 포기다

농정 그리고 UR① — 농업과 국민경제

들어며

한국농업은 대외적으로는 80년대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된 농업수출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강요와 국내적으로는 불균형 성장정책에 따른 농업축소 정책의 결과 농업해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파정에 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농산물 수입의 완전 개방을 계기로 이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식량의 자주적 확보의 상설과 극단적인 농산물 불균형에 따른 기형적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농가경제의 파탄과 대다수 농민의 생존권 위협 및 농촌의 폐쇄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분의 사면은 제조업 분야의 일대변, 고용불안정을 야기시키며 각종 도시문제와 국토환경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를 비롯한 그 비호 세력들은 농산물 수입의 완전개방을 불변의 전제로 삼아 극소수 기업농의 육성과 농지거래 자유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일련의 농업구조 개선정책을 내놓으며 국제화 시대의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농업포기를 전제로 한 농업의 체질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농업이 가지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의 비중과 그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농업수입의 필요성을 환기해보고 농업수입의 대 목표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국민경제와 농업의 위상

국민생활의 안정적 공급

농업은 국가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립적인 국민경제의 구축에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농산물 시장의 심장은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할 가격으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불안정, 수급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거대한 다국적 곡물 메이커의 시장 장악으로 조직적인 매점과 조작이 행해지고, 식량작물의 경우 미국, 호주, EC 등의 제한된 수출국과 증가되는 가시성이, 자연재해로 인한 수급량의 불균형으로 국제농산물 시장은 그 변화의 추이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실정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에 대한 수입의존 문제는

국제 농산물 수출량의 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단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량까지도 무기화했던 사태를 보더라도 이같은 상황을 언제 겪게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나아가 식량 자주성의 상실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경제는 물론, 농업은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은 공업, 서비스 등 국민경제 전부분과 전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연

국제농산물 시장은 기상이변, 미국등의 매점, 식량무기화등 불안정 요소가 많다

관을 맺고 있다. 즉 농업은 공업에 대한 원료공급의 공급,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일반 공산품의 상품시장, 관련공업의 성장기반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업의 성장은 생산력의 증대를 동반하며, 이것이 다시 농업에 영향을 미쳐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토대를 이룬다. 이것을 농공간 균형발전이라 한다. 그에 따라 국민경제 내에서 산업의 각 부문간 연쇄성이 높아지고 한 부문 산업의 발전이 다른 부문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산업간 연관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강화시킨다.

이와같은 농공간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자립적 국민경제 구축은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축적이 고도화되면서 국민총생산, 경제활동 인구 등 산업으로서의 비중이 감소되었다.

자본의 위임과 보리라도 선진 자본주의의 나라는 그것이 농공간 균형발전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자본축적의 기반을 국내보다는 외국에 더 의존함으로써 대외의존적 국민경제를 형성하였고 공업부분에 대한 집중적 보



쌀시장 개방으로 정부 양곡정책의 공간인 추곡수매제도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진: 시사저널>

호육성과 농업부분의 경사는 농공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3) 다양한 사회공익적 기능 수행 농업은 그 본연의 경제적 역할과 더불어 노동 및 도시문제의 완충기능, 국민건강의 담보기능, 환경보존 기능, 지역균형 개발기능, 민족문화 유산의 지장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익적 효과를 국민경제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공익적 기능으로서 구상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기여하고 있으며, 만약 농업이 없을 경우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대 도시화의 폐단을 지피하는 역할을 농업이 수행하게 되며 국토의 황폐화를 막고, 농촌지역 경제의 핵심산업으로써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가능케 한다.

국민경제의 농업-농업포기에 따른 국민경제적 손익

농업포기에 따른 국민경제적 손익의 현실 최근 전면화되고 있는 농업포기론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농업은 위축되고 농민은 없어진 지 모르지만 공산품의 수출증대와 국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더 이익이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전제변명이 단 거적인 공산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이것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장점을 할 수 없다는 것에서 그 맹점이 있다.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출증대는 기술개발과 품질경쟁력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기존의 저농산물 가격,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증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결과 그들이 말하는 국내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란 다만 농민을 무덤에 던져 버리는 길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농업에 의존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집적세제와 집적기술로서는 수출국의 과소하고 치환할 각종 이해 농산물을 막을 수 없어 소비자에 대한 가격적 부담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립 농업포기에 따른 국민경제적 이익은 단기적인 수출증대 효과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최대 연간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연구팀 추정, 1993) 2) 농업포기의 국민경제적 손익 농업을 지키고 육성함에 따른 국민경

제적 이익은 우선 국민생활의 안정적 공급,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다양한 사회공익적 외부경제요인의 유지 등과 같은 국민경제내 농업의 역할이 유지되고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익이 되며, 농업포기는 이같은 이익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농업의 포기 내지 사양화의 길로 들어설 경우 농업 및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계량상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교육 및 무역거래상의 상품가치(교육적 가치)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이 허용하는 비교경제적 관심사항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농업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

교육적 가치에 의한 수입자유화의 피해는 생산농민들이 농산물 수입시장이 완전자유화될 때까지 할까치 양농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할 방법으로 농가 직접 피해는 1조 6천억원, 농민수입의 무역적자는 92년 42.6억달러에서 2001년 1140.3억 달러로 그 피해가 이산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유혹요소가 늘어

국민경제의 자립구조

강화는 농공의

균형발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

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는 지난해 한 해만 하더라도 여의도의 약 50배가 넘는 면적(4천 5백만평)이 줄어들고 이동인구는 지난 10년간만 평균 43만명을 오르내렸다.

이같은 현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지금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92년의 식량지급률이 34%에서 2000년도 중에는 20% 이하로 떨어지고, 예정된 1-4%의 부분개방에 앞서 더 많은 수입증가 상자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부방향이 지난 1년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스스로 주장해왔던 이른바 NCI기능을 막상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에는 피해추정 과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농업은 그 특성상 한번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나면 다시 된 상태로 복구하기 힘든 것이다.

맺으며

농업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소화시키며 여러가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같은 농업의 공익가치를 그만큼 잃어버리고 만다. 어느새 농업만 단순히 부양경제 대상의 상품가치로만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이 굳어졌다.

농업의 가치를 단순히 식량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상품가치로만 한정하여 평가할려고 하고만 있다. 그러나 보니 우리 농업은 외국 농업에 비해 수지 맞지 않은 비효율적인 산업,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은 비효율적인 인력,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저농민의 인간으로 낮춰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구의 어느 나라에서도 농업은 자립성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다. 농업인구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리고 농민이 국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떠나 이 지구상에 자국 농업과 자국의 농업에 대하여 세계, 금융, 권위주의 등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대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정부와 도시 소비자들이 자국 농업에 대해 가격보조 또는 생산보조와 직접 소득보조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이다.

민족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민족의 통일을 가능케 한 것은 식도의 막강한 공익적 때문이 아니라 농업농민을 통하여 대비, 보호 육성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 '농민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은 그만해야 한다. 농민이여 농촌을 떠나라는 그같은 말이 우리 자신과 도시민과 국가의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최소한도의 농업 농민을 지켜내야 할 때까지 때문이다. 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의 농업은 국가와 민족의 기본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우리 농민은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박 명 구

<서울대 농업정책 연구회>

이번호 '농민생활'시리즈는 지면배정상 5면으로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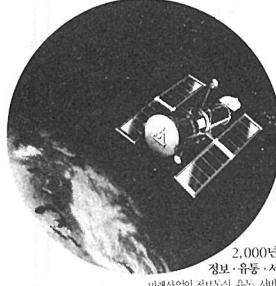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기관산업
국가기관의 주역이 되었던 조선산업과 석유산업으로 한창의 기적의 일과를 담당했습니다.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2,3금융의 핵심분야인 증권, 담보, 보험 등을 각각 종합금융, 증권금융, 경제금융의 기둥으로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1세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아닌 비상이 없는데 내일이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미래는 미리 알아보는 미래기업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발전에서 꼭 필요했던 자본과 기술산업에 관한 앞서 뛰어오르고, 80년대, 90년대 종합금융산업의 기둥을 두루보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동양은 모든 미래 기업에 미래산업에 투자해 갑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성사의 관점'으로 남북 만나야

북핵관련 인터뷰 -

정대철 민주당 의원

-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1일 북미 3단계 회담을 앞두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시설 사찰 또한 진행중이다.
- 본보에서는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의원을 만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의 통일전략 연구' 논문으로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방위원으로 남북관계·북한 핵문제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터뷰는 3월 12일 (토) 국회의원회관 정대철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편집자>



북핵을 둘러싼 미러론 회담이 이제 중반을 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2월 16일 이후 긴장상태는 일단 벗어났지만 아직 전방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북핵 타결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핵의 타결은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같은 민족인 남한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북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성이 그들의 주체성으로 그치고, 남한의 민족주체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안해주었다는 데 실망을 느낍니다. 이미 남한을 제국주의의 폭독까지 정도로 판단을 했었고, 핵문제는 무엇보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사교화를 위한 실무접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점에서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합상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핵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남북 경협·인적교류 등도 멈췄는데, 북핵과 관계없이 남북 긴장관계,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북한과 미국, 일본, 서방이 관계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것은 아직 우리 정부의 방향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통일전장의 3대 원칙은 권위주의, 화해치 않고, 상대방의 지존성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남북 관계개선에서 아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통일 창구의 다양화된 측면에서 아랑의 활동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기대 대표가 남북을 추진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할 때는 응징한 지사라고도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궁극적으로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고 보

십니까

북한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서방세계의 주장에 대해서 제기자를 받아 들였습니다. 유엔 동시가입, 교차승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합법성 인정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영구분단의 인정을 해지 전제로 반대하던 사항들이었는데, 이에 대한 인정대신 사법세계와의 국교와 경제협력을 얻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번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권위의 반격 기회였고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남북 북이 '북핵'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남이 참여하도록 북이 도와야 합니다.

북미 3단계 회담이 예정되고 미국 내 온건파에서 북한 경제지원이 야기되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인 고립감 해소, 북미수교, 서방 경제원조 등에 대해 미국이 고려하면서 핵에 대한 물과구를 찾아간다면 북미관계는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계와 관련하여 제합상의 요구가 높은데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계와 합의한 김영삼 대

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끝까지 한계와 합의에 반대하여 국회비준동의거부의 입장을 표할 겁니다. 6백만 우리 동민의 정당을 3월 7백만 이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제화·세계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론만 세계화·국제화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당장 어떻게 국제화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외교관 중에 외국어로 우리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되는 데 세계에 나가 우리의 이익을 쟁취해 줄 수 없어요. 한협상 때만 봐도 알지요.

세계화, 국제화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절제해 가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12주기를 맞아

문부식씨를 만나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부미방).
오후 2시에 미문화원인 화생에 의해 불타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않고 이땅을 물려가려는 제국의 성령사가 시대 곳곳에 뿌려졌다.' 이 시간으로 총 22명이 구속되고 최고 사형에서 처형 징역 1년, 집행유예2년까지 받았다. 이것은 '반미'를 처음 대중적으로 외쳤다는 점에서 광주민중항쟁 이후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UR 협상으로 다시금 반미의식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본보에서는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91년에 석방된 문부식씨를 만났다. 며칠 후면 12주기를 맞는 부미방의 주역이 바라보는 오늘날의 반미문제는 어떠한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80년대가 준 교훈은 짓밟힌 민족의 발전이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80년대는 광주 항쟁이 좌절로 부터 시작되는 해였다.

5.18이 우리에게 안겨준 부끄러움과 슬픔은 다시금 민족과 애국에 대해 생각하게끔 해주었다. 또한 막연하게 느껴졌던 외세와 민족과의 관계를 고전하게끔 했다.

그 당시 반미 의식은 어느정도 고조돼 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군사정권을 기지근하고 있는 미국이 12.12 사태나 5.17 군사 내란을 겪은 모로고 있었을 때를 떠올릴 수 있겠지요. 한협상 때만 봐도 알지요.

세계화, 국제화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절제해 가자>

한미 중추구조를 과학적으로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한 미대사관 위협이 공식적으로 '한국국민은 동지'와 같이 민주주의가 위협하지 않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도 미국이 군부독재를 지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화하는 극단적 방법을 찾게 됐는지.

이러한 경향을 내리기까지 나 스스로 읽은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 가 한미 연합사령부 대령인 아들의 입장에서 보는 더욱 힘들었다. 만약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언론을 통해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감지에 약하고 약지에 강한 폐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변화라는 방법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과 정권의 반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방화적 한계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다. 반미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미문화원 방화라는 것은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을 내을 자유도 없었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광주 항쟁의 '공포감' '배배'로 부터 나온 침묵하는 상황에 등과 구별된 것과 구분이 되어오던 한미 관계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1월달 남측원의 미문화원 기습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살당이 주장한 내용은 우리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세워야 할 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발생

의 전환, 연대의 복을 넓히는데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의 싸움은 정부와 학생들의 싸움은 아니다. 반미에 대한 인식들이 내가 활동하던 80년대 초와는 달리 입법적으로 퍼져있어 방법을 좀더 고민하면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협상에서 반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같다. 대공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공처럼 살기 쉬워졌지만 대공처럼 살기에 대공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실감나는 때인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또 그들이 외치는 '국제화' '개방화' 이데올로기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소수 재벌을 위한 도구로 불려다니는 것임이 밝혀진 지금, '팔팔'을 중심으로 전국민적인 기구투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금 하시는 일은

저작활동과 '새로운 정치 조직' 건설을 위한 모임의 부대인원을 맡고 있다.

몇 달전 '꽃뱀'이라는 시집을 냈다.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난 2월1일 총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 학생·농민들이 전경들과 대치한 장면 보다는 대열 중간에서 여학생들이 색도화지를 갖고 선전전을 하는 모습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 운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사회부>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무공해 에너지는 과연 존재할까?"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딛는데 성공한 아폴로 우주선.

우주시대의 서막을 올린 그 전기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연료전지였습니다.

연료전지는 1802년 영국의 데비스경에 의해 고안되어 아폴로 우주선에 이용되었고,

1960년대부터 상업용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미국, 일본등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추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프로젝트가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연료전지발전이란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전기와 물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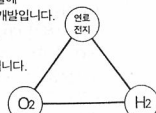
열을 얻을 수 있는, 전력생산 분야에서 효율이 가장 큰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공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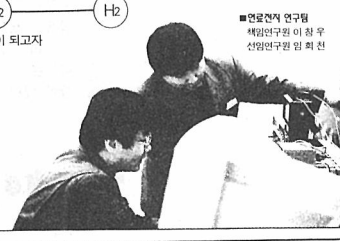
완전한 무공해 에너지는 없을까?

저희 한국전력 기술연구원 전력연구팀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하여 국민 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밝은미래를 열어나가는
한국전력공사



■연료전지 연구
개발연구팀이 청수
실험연구를 하고 있다



나 앞서 있었던 시기에 그 안에서 깨달고 있었던 인력지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태는 어떠한가? 위태는 더 말할진해야 한다. 아니 정제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지금까지의 위태, 오늘날의 위태여과파고를 만들어 낸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외대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본래 대외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서, 곧 대외의 교육이념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추구하는 데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밀려나고 있는바, 이보다 오히려 이념 미로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한 것이다.

우리가 실천할 화해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서, 곧 대외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또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추구하는 데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밀려나고 있는바, 이보다 오히려 이념 미로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한 것이다.

우리가 실천할 화해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서, 곧 대외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또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추구하는 데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밀려나고 있는바, 이보다 오히려 이념 미로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한 것이다.

실명제가 뭐길래

실명제가 뭐길래

1000

